

# 수요 인터뷰

##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씨앗을...”

### 평화통일 기원 '천수천안 관음송가' 공연 지원스님

93년 5월 14일 제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첫발을 터뜨린 「민족통일기원 한라에서 백두까지 천수천안 관음송가 대합창제」가 일곱번의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는 8일 대희향의 자리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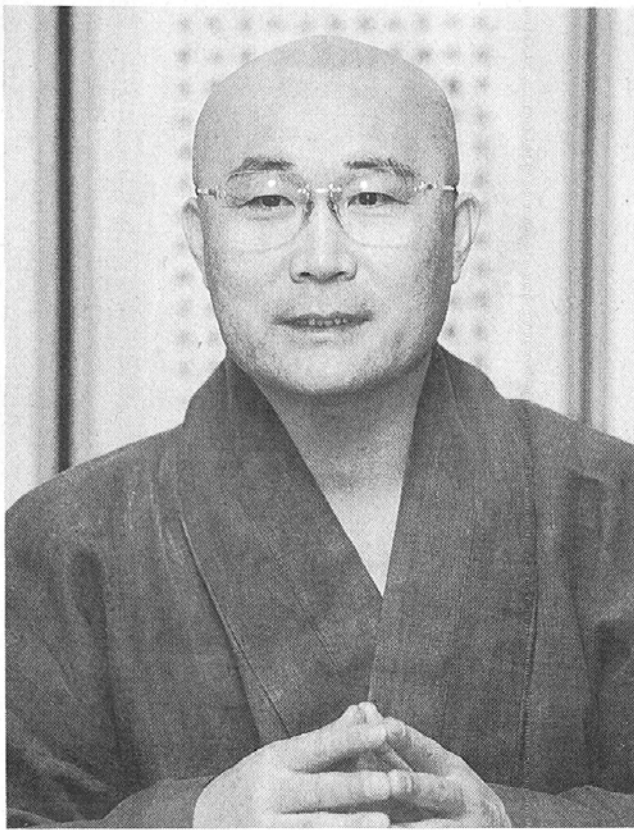
제주, 속초, 창원, 부산, 대구, 대전, 백두산천지에 이어 광복50주년을 기념하며 민족통일의 염원을 다시금 새기기 위해 열리는 「천수천안관음송가」는 삼보사 합창단에 의해 공연된다. 「천수천안관음송가」의 가사를 쓰고 공연 전반을 이끌고 있는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을 공연 연습이 한창인 삼보사에서 만났다.

- 공연을 앞두고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공연의 의미도 함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보살 가피 염원

▲이미 일곱번의 순회공연을 해 온 경험이 있어서인지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원들의 열의도 대단하고요. 무엇보다 「천수천안관음송가」의 공연은 불교음악의 발전과 통일의 염원을 재확인한다는 두가지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형 합창곡을 지방 순회공연함으로써 불교음악의 질적, 양적인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음악포교의 차원 높이기에 대한 가능성 확인이란 중요한 결실도 포함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또하나 중요한 의미로 꼽히는 통일



수 있고 보란도 있는 것입니다. 개별 사찰에서도 포교봉사에 매진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 기르고 그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겨야 합니다. 송가가 할 일과 재가 포교사의 몫을 잘 나누어야 해요. 주지스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잠시 얘기가 포교쪽으로 기울어 졌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음악포교의 원력을 세우셨고 그 결실도 이런 공연을 통해 보여 주시는데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하나 꾸리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내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가정 「범민족 평화통일 불교문화교류 연합 합창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교합창단과 해외 교민·불자들의 합창단을 한데 묶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음악의 질적 양적 발전을 이끌어 가고 또 민족 통일의 씨앗을 어우러진 목소리로 피워 보려는 겁니다. 현재 전문가들과 만나며 조직의 결성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입 단체를 모으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 그것은 단체가 결성되면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 동질성 회복 불사

▲궁극적으로 불교문화발전과 통일의 실현을 위한 행사도 갖게 되고 관련 연

## “이런 염두에 두면 문화포교불사 알맹이 썩어” 단원들 열의 대단... ‘범민족 불교합창단’ 추진도

염원의 확인이란 점은 통일을 갈망하는 전국민의 발원을 한데로 어우르게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화평한 음악으로 염원 한다는 것. 거기에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염원하는 간절함이 합쳐지는 무대여서 더욱 뜻이 깊은 것입니다.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남누리 북누리에 통일의 염원을 노래로 심는다는 것도 중요한 불사입니다.

-이같은 대형 공연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텐데 그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작년(93년) 첫 무대를 올린 이후 지금까지 송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더러 사정이 넉넉치 않아 좌절의 분위기까지도 맞았으나 단원들과 신도들이 합심해 더 좋은 무대 만들기에 힘을 모았습니다. 첫 무대가 막 올린 93년은

삼보사 창건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까. 그러니까 10년간의 다져진 힘이 이같은 무대불사를 창출해 낸 셈이고 그 원력이 오늘날까지 연꽃처럼 거꾸거꾸 피어나는 것이지요.

-음악을 통한 포교 효과에 대한 스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대중과 마음 교감

▲가장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포교는 대중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중 속에서 그들과 호흡 나누며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것이 음악포교밖에 더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통한 불교문화발전과 포교의 마당 넓히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스님께서는 도심포교당을 매우 성공적으로 일구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

데요. 우리 불교계의 포교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주하는 포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송가의 의식개혁과 적극성도 필요하고 재가 포교사의 질적인 향상과 활동의 전문화등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감안한 제도적장치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력이 우선 정착돼야 하겠지요. 또한 범포교와 친불가들도 용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통일돼야 합니다.

-종단이나 포교원과 같은 기관에서도 포교의 방행태를 잘 잡아야겠지 만 현실적으로는 일선 사찰과 포교당에서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언제나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삶의 현장으로 파고 드는 포교야 성공할

구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주민들과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함께 깨닫고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음악을 통한 교감이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까지 70% 정도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더 음악이 잡히고 알맹이가 생길수록 좋은 결과를 가지고 불자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어려운 여건속에서 큰 일을 꾸려 나가시는 스님께서 문화포교 단체들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순수하라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충분히 쌓아가고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그 순수성이 필요합니다. 허망한 이권을 염두에 두면 음악이건 미술이건 문학이건 문화포교는 알맹이가 썩게 되니까요.

(염연태 기자)

## 나의 수행일기

정천구 (인천대 대학원장)



새벽 4시를 알리는 과종시계가 울린지도 얼마가 지났다. 이제는 일어나야지 하면서 입속에서 '미륵존여래불'을 얼마간 염송해 본다. 부처님의 호흡법에 따라 깊고 고르게 날숨과 들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일어나 시간을 보니 벌써 4시20분이 되었다.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불보살님이 설법을 하신다는 3시, 4시엔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방학을 핑계삼아 늦기 일쑤이다. 그래도 오늘은 크게 늦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합장하고 원을 세운다. 우선 다시 잠들지 말고 공부를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금강경 잘 읽어서 부처님 잘 모시기 발원" 해 본다. 공부도 "내가 잘 해야지" 하고 마음이 앞서면 탐심이요, "공부가 왜 안되지" 하고 조바심을 내면 진심(성내는 마음)이며, "이젠 공부가 잘 되는군"하고 자만심을 내면 치심(어리석은 마음)이다. 탐진치를 내지 않는 것이 불교공부이니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잘하겠다 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이 잘하기를 부처님께 발원하는 것이다.

원을 세우고 나니 어느새 잠자리에서 벗어나 양치질과 세면 등으로 몸을 가다듬고 공부방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부처

중에서도 가장 밝은 최고의 가르침을 갈무리해 놓은 경전으로서 금강경 독송은 불교수행의 기본이 된다. 금강경을 읽으면 부처님의 밝은 기운과 맑은 사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되고 밝은 지혜가 난다. 따라서 불교를 신봉하는데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고, 평소에도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이 달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금강경 읽고 평소에는 보고 듣는 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부처님' 하든지, '미륵존여래불' 해서 부처님께 바친다.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넣어 두면 업이 되고 괴로움의 씨앗이 되지만, 부처님께 바치면 업장이 소멸되어 밝고 씩씩해진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복잡한 현대생활

## “탐진치 내지 말자” 항상 발원

### 20년전 백성욱 박사 지도받아... 매일 금강경 독송

님' 하는 마음에 대고 세번 절을 드린 다음 반가부좌로 앉아 금강경을 독송한다. 독송이 끝나면 오늘의 원을 세우고 '미륵존여래불' 염송을 한다. 잠시 그대로 앉아 얼마간 호흡을 조정한다. 다음에 몸을 풀고 기혈의 유통을 원활히 해주는 몇가지 운동을 하고 목욕을 한다.

금강경 독송에 의한 이와같은 수행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은 백성욱 선생님이시다. 내가 백성욱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1살이던 고려대



에서 마음속에 쌓이기 쉬운 생활의 찌꺼기들이 해소되어 정신이 건강해진다. 뿐만 아니라 세포의 신진대사에 좋은 영향을 주어 일주일만 계속 금강경을 독송해도 피부가 고와지고 소화기 축진되는 등 육체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정신과 육체가 완전하게 건강해진 분이 부처님인데 금강경공부란 그분의 밝은 기운을 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수행이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해서는 온전한 수행이 못된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이기심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도 바로 서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는 것은 더욱 맞지 않는 말이다. 마음은 원래 풀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 네 마음, 중생의 마음을 따질 것 없이 모두 부처님께 바쳐 제도를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 공부로 자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주위가 밝아지고, 주위가 밝아지면 온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금강경을 읽는다. 아침에 읽는 것이 아니라 늦은 저녁에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전의 금강경 독송은 조용하고 건강한 잠을 예상하는 것이다. 지금 나의 귀에는 선생님께서 우리들을 잠정하실 때 합장하시며 발원해 주시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 하다.

백성욱님에 의하면 금강경은 부처님 경전

## '95 대원불교대학 총동문회

귀위 삼보하옵고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부처님전에 기원하오며 다음과 같이 '95 대원불교대학 총동문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왕림하시어 오랫동안 잊혀졌던 동문들과 만나 묵혀 두었던 옛 추억, 한잔의 차, 그리고 한국 불교의 미래와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한 고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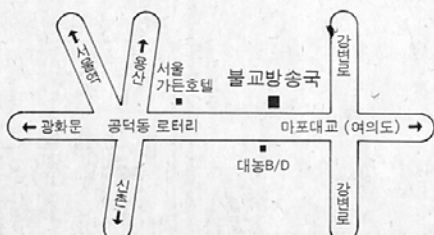
1995년 3월

대원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장 안진수 합장

일시  
1995년 4월 8일 (토) 14:00

장소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불교방송국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 일반버스 3, 30, 30-1, 37, 48, 70, 112, 119, 123, 133-2, 135-1, 145, 302, 522
- 좌석버스 54, 60, 61, 63, 67, 72-1, 703, 704, 718, 720, 753
- 마포 서울가드호텔 앞 정류장 하차

대중불교는 움직이지 않는 것만 바라는데 그치지 않고 비움것을 더욱 바르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흥선구 우정동 358-1 (재)대원사

##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가의 지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지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범당이아기, 불교와 민속, 열과 문화, 폐사지를 찾아서...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골짜기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 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